

# 카드사 꿈수영업에 줄지 않는 휴면카드

고객에 해지 알려면서 신규 가입 유도

7월 현재 2313만장... 당국 집중 점검 필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서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일명 장통카드)에 대한 자동해지 제도가 시행중인데도 수가 줄지 않고 있어 감독당국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면카드가 해지된다고 고객에게 알려면서 신규 카드 가입을 유도하는 상술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휴면카드가 새로운 휴면카드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휴면카드는 2313만장으로 지난 4월 말의 2343만

장보다 30여만장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1월 말의 2355만장과 비교해도 크게 변동이 없는 수치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명당 여전히 평균 1장의 휴면 카드를 가진 셈이다. 감독당국은 지난 3월부터 고객이 휴면 카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을 정지하고 3개월 후에 자동 해지하도록 카드사에 지시했다. 문제는 감독당국의 압박에도 오히려 휴면카드 비중을 늘린 카드사들이



지적 않았다는 것이다. 비씨카드는 지난 4월말 전체 신용카드 중 휴면카드 비중이 14.36%였지만 7월 말에는 17.13%로 증가했다. 하나SK카드도 휴면카드 비중이 지

난 4월 말 28.03%에서 7월말 29.02%, 현대카드는 21.77%에서 22.0%로 각각 늘었다. 휴면카드 보유 규모로 보면 신한카드가 476만장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289만장), 국민카드(263만장), 삼성카드(261만장), 롯데카드(213만장) 순이었다. 이처럼 휴면카드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카드사들의 편법 영업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고객에 휴면카드 해지를 전화로 알려면서 연회비 면제나 부가혜택, 사은품 제공 등으로 신규카드 가입을 유혹하는 상황이다. 카드사로서는 휴면 카드도 잠재 고객이므로 신규 카드 가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유지 비용을 감내하면서 휴면카드를 살려둔 것은 이들이 잠재 고객이기 때문”이라면서 “자동 해지시키기보다 적극적인 영업으로 새로운 카드를 만들도록 권유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금융원은 오는 3분기까지 휴면카드 정리 현황을 살펴본 뒤 불성실한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휴면카드 축소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휴면카드 해지를 홍보하면서 신규 카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대경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 美증시 단기조정 등 해외변수 주목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재와 산업재 업종의 실적 바닥 통과 기대에 따른 영향이다. 그러나 KOSPI는 1900pt 위에서는 상승탄력이 현저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우려 완화만으로는 추가 반등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해외 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증시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승폭을 보인 반면, 조정 시점에서는 오히려 큰 낙폭을 보이는 패턴이 자주 나타났다. 금번의 경우도 미국 증시의 단기 조정이 국내 증시의 하락 발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9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재현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달러 강세 전환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증시의 조정과 맞물려 신흥국 증시의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수 있다. 중국 증시의 향방도 중요하다. 최근 나타난 소재와 산업재의 반등은 어닝 쇼크 진정에 따른 안도감도 작용했지만, 중국발 우려가 잦아든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재발하거나, 상해지수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KOSPI 밸리를 주도한 소재와 산업재 업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거래대금 부진현상과 함께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체 시가총액의 2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하드웨어 업종의 투자심리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탄력적인 지수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세가 전개될 것

으로 예상된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7월 상승을 이끌었던 조선, 화학 업종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 건설 등 여타 장기 소외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선별적으로 유입되며 업종별 매기 확산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가격 메리트 보유 업종군, 업황 턴어라운드 업종군, 그리고 추세유지 업종군 중심의 균형 잡힌 시차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째 가격메리트 보유 업종의 경우는 은행, 건설, 철강이다. 아직 업종 전반에 대한 이익 신뢰도가 높지 않아 업종 내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선별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경기 모멘텀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업황 턴어라운드 업종의 경우는 조선과 화학이다. 전라적인 측면에서는 유로존 경기회복 모멘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관련 민감도가 높은 조선과 화학 업종의 경우 선박금융 시장의 호전 및 글로벌 교역량 확대에 따른 산성인화 개선, 유럽항 수출 증가 등으로 가격지표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이익 가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셋째 추세 유지 업종의 경우는 제약·바이오, 자동차이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신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규제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신약개발을 통한 해외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수완지점 PB〉

## 우윳값 인상 강행 ... 정부 자제 요청 무색

서울우유·매일유업 이번주, 남양유업 이달말 올릴듯

유업계가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도 우유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내놓았다.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 첫날인 전날 일부 업체가 인상 방침을 철회한 지 하루 만에 방향을 바꿔 나온 것이다. 서울우유는 오는 9일부터 우윳값을 10.9%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서울우유 1L 들이 제품 가격은 2300원에서 250원 오른 2550원이 된다. 서울우유 측은 “어려운 국내 경제여

건과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을 신중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8일부터 우윳값을 10.6%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1·3위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나란히 가격 인상을 결정한 만큼 인상 여부를 고심했던 여타 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곧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2위인 남양유업은 이달 말 이후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빙그레도 8월 중 우윳값과 가공유,

발효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며, 인상 폭은 10%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푸드는 이달 중순 파스타류 유제품 전체 가격을 7.9% 올리기로 했으며 세부 인상시기를 조율 중이다. 푸르밀은 20일을 전후해 흰우유 가격을 매일유업 수준인 10.6%, 요구르트와 가공유 가격을 7~8% 올린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반대에도 우유가격 인상이 단행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공유를 비롯해 커피,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가격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 상한 머릿결 탄력있게 ...

본격적인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은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매장에 자외선에 지친 피부나 상한 머릿결을 탄력있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피부전용 헤어 샴푸와 트리트먼트, 아르간케어 오일 등 다양한 기능성 상품들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5천만원 넘는 자연재해 피해도 지원

농식품부, 이달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농가 피해가 5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연 1.5%, 5년 걸쳐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자연재해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산지 폐기하면 산지폐기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은 1t당 7만5000원, 소·말 등 대가축은 마리당 3만1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마리당 5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마리당 260원이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정전피해도 재해로 인정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가사·육아 전념’ 722만명 사상 최대

경제활동 이끌어 낼 대책 필요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중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거나,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다.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이들을 일터로 끌어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사와 육아 전념자는 721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

년 이후 매년 6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15세 이상 인구는 4209만8000명으로 가사·육아 전념자는 6명 중 1명꼴이다. 역시 사상 최대인 비경제활동인구 1580만7000명 중에서는 45.6%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다. 특히 살림만 하는 가사 전념자는 576만5000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 전념자의 비율은 36.5%로 1999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가사 전념자는 통상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실직자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고착화된 게 아냐는 추정도 제기된다. 지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마치면서 2000년 6월에 474만6000명으로 1년전보다 17만8000명, 신용카드 대란을 거치면서 2004년 6월에 511만7000명으로 17만8000명,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6월에 556만2000명으로 24만6000명이 각각 늘어난 바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63만명이다.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도 13만5천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 똥코

**■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비염·호기/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종양에 의한 장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지막/ 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 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삼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청 허가 의 일반의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비염·건조 증상의 완화  
용법·용량 / 성인: 증상제 따라 필요 시 약액 비강점액에 2회 분사하심,  
어린이: 증상제 따라 필요시 증량하심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 씻코

**■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꽃속을 즐긴다!  
**엔클 비액**

효능·효과 / 비염·건조 증상의 완화  
용법·용량 / 성인: 증상제 따라 필요 시 약액 비강점액에 2회 분사하심,  
어린이: 증상제 따라 필요시 증량하심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 1202-0705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